

광주여성\*

두	홉	길
---	---	---

길 위의 길, 발걸음 위의 발걸음,  
당신이 걷는 그 길 위에 광주여성이 있습니다.

## 두릅길 속 인물 / 10

서서평(1880~1934, 독일) / 12



유화례(1893~1995, 미국) / 14



양림동의 여성 선교사들 / 15

엄언라(1869~1930) / 구애라(1883~1964)  
도마리아(1881~1972) / 마가렛벨(1873~1919)  
프란세스(1891~1959) / 허마르다(1941~)

조아라(1912~2003) / 18



김필례(1891~1983) / 19



현덕신(1896~1963) / 20



김함라(1887~?) / 22



김마리아(1892~1944) / 23



박애순(1896~1969) / 24



진신애(1900~1930) / 24

윤형숙(1900~1950) / 26



최흥종(1880~1966) / 27

광주여성두릅길	04
여성사 관점의 필요성과 의의	05
두릅길 코스안내	06
백단심길 코스안내	08
광주두릅길 연표	10

## 두릅길 속 장소 / 28

01) 이일학교(1922)	/ 28
02) 수피아여학교(1908)	/ 29
03) 오웬기념각(1914)	/ 30
04) 우일선선교사 사택(1910)	/ 31
05) 선교사 묘역(1900)	/ 31
06) 유진벨선교기념관(2016)	/ 32
07) 제중병원:광주기독교병원(1905)	/ 33
08) 3·1만세운동길 아리랑고개:기억의 언덕	/ 34
09) 광주YWCA(1922)	/ 36
10) 근우회(1927~1931)	/ 37

# 두혼길은?

광주여성들의 진취적인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도보여행

2019년부터 발행한 광주여성사(고대, 근대, 현대)를 바탕으로 도보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주 근대여성교육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두혼길’, 광주여성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백단심길’ 2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역사 속 광주여성들을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도보투어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기억해 주십시오.

## 왜 두혼길일까?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54세로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시신마저도 의학 해부용으로 사용하라는 유언을 남길만큼 청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전 재산은  
담요 반 장과 보리쌀 두홉, 현금 27전이 전부였습니다.

두혼길은 이처럼 서서평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기리는 의미입니다.

“길 위의 길, 발걸음 위의 발걸음,  
당신이 걷는 그 길 위에  
광주여성이 있습니다.”

## 여성사 관점의 필요성과 의의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기록되지 못하는 한 존재의 의미가 누군가에게 닿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기록해야 한다. 여성이어서, 기억되지 못한 존재라서 더더욱.

역사는 그동안 지배자의 관점에서 승자의 이야기들을 기록해왔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역사의 뒷전에 서성거렸다. 여성주의 학자들은 역사 속에 소외된 여성의 삶을 드러내고자 생애사에 관심을 갖고 구술사라는 여성학적 방법론을 구축해왔다.

여성학 방법론의 등장으로 역사는 지배자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여성사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조안 스콧은 편지, 일기, 자서전, 구술사, 그림 등을 폭넓게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주로 역사서에 의존해 있던 역사연구 방법론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젠더적 관점의 여성사는 지배계층의 이야기에서 탈피하여 섹슈얼리티, 출산, 육아, 모성성, 동성애, 몸, 일상생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가고 있다.

여성사 관점의 필요이유, 여성사 관점이란  
(광주여성사 II 근대편 8P)



미국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묘역  
선교사 및 그 가족 27명 안장

우일사  
선교사사택

허마르다 허철선 부부(1965년 한국 입국)는  
5·18의 참상을 촬영해 해외에 알렸으며,  
항쟁 기간 많은 이들의 도피처로 이용됨



⑦

허철선선교사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러곤

광주 여성근대교육의 효시  
여성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문화 형성  
3월 10일 광주 만세운동에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함



수피아여고 ⑧

1905년 미국남장로교 의료선교사 놀란이  
유진벨의 임시사택에 진료소(제중원)를  
연 것이 광주 근대의료의 시작이 되었음



기독교병원(제중원사관)



⑤ 유진벨선교기념관

유진벨선교사와 그의 동역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개관(2016) / 서서평을 비롯한 여성선교사, 남성 선교사 배우자들의 이야기 전시



광주시립 사직도서관

선교사기념비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옆 버들나무



①

양림교차로



조아라기념관

③

10년후 그라운드

④ 양림동 최후의 만찬

서서평  
변화골목

⑨



오웬기념각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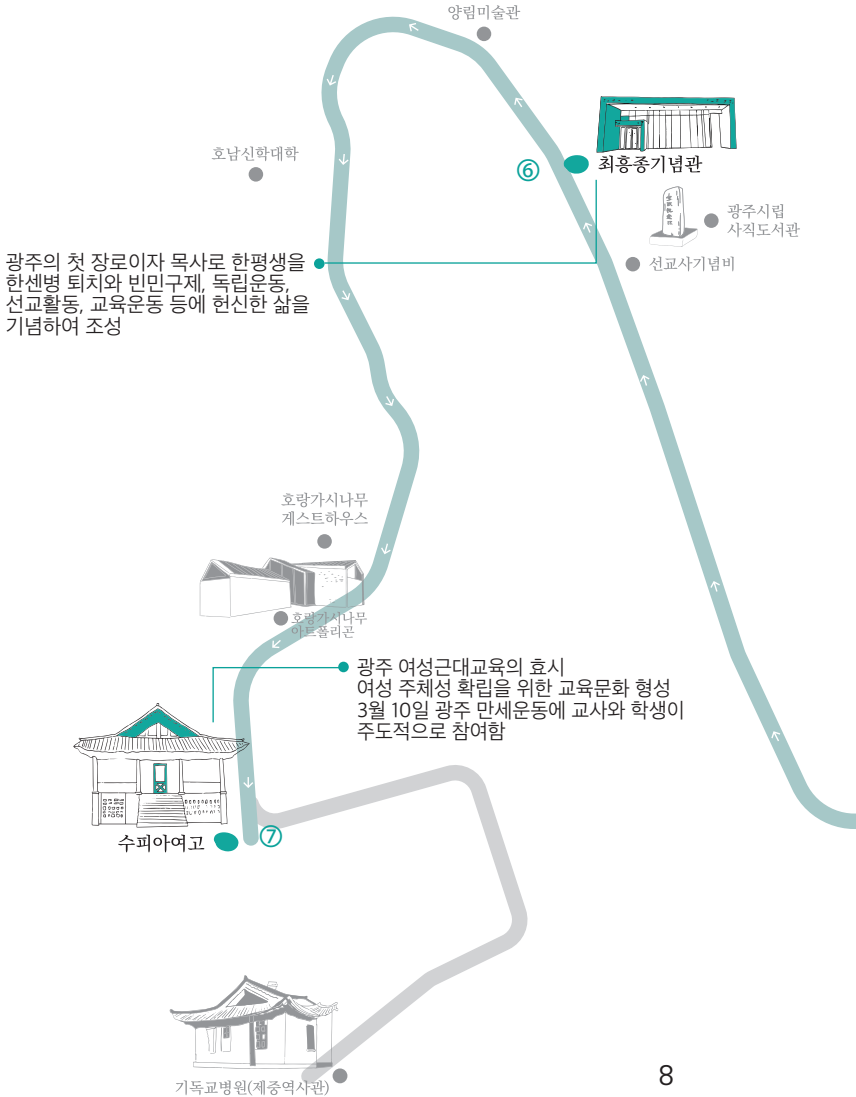
개화기 초 열린 음악회, 연극과 무용 등 공연되었던 근대 문화시설

서서평 선교사가 설립한 이일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일제강점기 민중운동, 해방 후 YWCA 활동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한 조아라 활동 기림

서서평을 뜻을 기리고자 양림동 여성친화마을협의체에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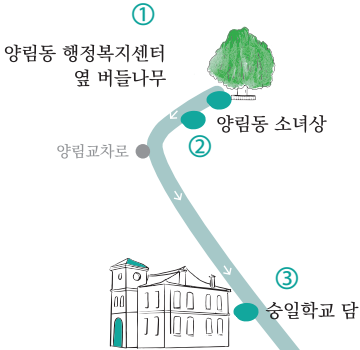
- ①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옆 버들나무 → ② 오웬기념각 → ③ 조아라기념관 →
- ④ 양림동 최후의 만찬 → ⑤ 유진벨 선교 기념관 → ⑥ 선교사 묘역 →
- ⑦ 허마르다 허철선 선교사택 → ⑧ 수피아여고 담 → ⑨ 서서평변화

# 광주여성독립운동, 백단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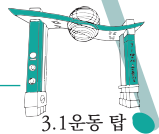
- ①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옆 버들나무 → ② 양림동 소녀상 → ③ 송일학교 담 →  
 ④ 3.1운동 탑 → ⑤ 3.1운동 아리랑길 → ⑥ 최흥중 기념관 → ⑦ 수피아여고 담



김함라 집터  
 김마리아가 일본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김함라의 집으로 와서 광주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  
 1919년 3월 10일 오후 2시 교인들과 수피아여학교,  
 송일학교 학생들은 아리랑을 부르며 행진하였으며,  
 이를 기념하여 길이 조성되었음



3.1운동 당시 펼쳐진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치됨. 탑 아래 공훈자 명단 수록



## | 광주두릅길 역사연혁표

### 1910

1912

서서평 간호선교사 광주 부임

1911 수피아여학교신축

1916 유화례 선교사

미국 남장로회 한국선교사로 임명

### 1915

1918. 2. 8.

도교 한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낭독/결의문발표

1918. 2. 17. 김마리아가 독립선언을  
전파를 위해 독립선언서 감춰입국

김함라(친언니) 광주 집으로

독립선언서 전달

1919. 3. 10. 수피아여학교 교사

학생 광주독립만세운동 주도적참여

1919 광주 제중병원 간호사로

서서평 선교사 부임

### 1930

현덕신

광주YWCA 2대 회장 취임

1930 엄언라 선교사 소천

양림동 선교사 묘지에 안장

1930 조아라를 단장으로 한

'백청단' 비밀결사체 조직

1931 이일학교 교사로 조아라 근무

1932 '백청단'의 주동인물로

조아라 유치장형

1934. 6.26. 서서평 소천(54세)

### 1935

1937 수피아여자중학교 교감으로

김필례 취임

### 1940

1944

김마리아

고문후유증으로

소천

1933~1937 제 5대 광주수피아여학교 유화례 교장 임명

## 1908. 4.

### 광주 수피아여학교 개교

## 1920

1922

광주 이일학교 설립

1923 한국간호협회(광주사무소) 창설  
서서평 선교사  
11년간 회장으로 협회 운영

## 1925

1929. 11.

광주학생항일운동

1927. 1. 유화례 선교사  
광주 수피아여학교  
음악 교사 취임

1928 현덕신

남편 고향인 광주로 이주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사로 근무

## 1945

광주 YMCA 상무이사로  
조아라 선임

1945 수피아여자중학교  
김필례 교장 취임  
1948 현덕신 신생유치원 설립  
1948. 9. 신사참배로 폐교된  
광주 이일학교 복교

## 1960

1962

성매매 여성의 교육을 위한  
'계명여사' 설립

1960 대의동에 YMCA 회관 재건

## ~ 1970 이후

1995

102세의 나이로  
유화례 선교사 소천

1984

YMCA 회관  
복구 유동에 건립

1978

유화례 선교사  
미국으로 귀국

01

# 서서평

Elisabeth Johanna Shepping  
1880~1934, 독일



여성들을 위한  
이일학교 설립자

-

광주 최초 사회장으로  
장례 치름

독일 출신 미국 간호선교사로서 22년 동안 광주에 살면서 병자와 여성들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미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했던 서서평은 미국 남장로교 해외파견 간호선교사로 선발되어 1912년 광주에 처음 발을 디뎠다. 이후 광주 제중병원과 군산 예수병원, 서울 세브란스병원 등을 거쳐 1919년 광주 제중병원 간호사로 부임하면서 광주에 정착했다. 1922년 광주 이일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구제와 자선활동의 동력이 되는 부인조력회를 조직하면서 여성들의 교육·계몽에 힘썼다.

"조선의 생활방식에 더 순응하겠다는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조선에서 보낸 지난 17년 6개월을 돌아볼 때, 조선인들의 높은 이상과 생활 방식들을 과소평가하는 가장 큰 실수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중략) 사실 조선에는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1930년 8월 안식년을 끝내고  
후원자들에게 쓴 편지

서서평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만으로 여성지도자를 길러내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여성을 일깨우는 것은 선교사 몇몇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체감하여 조선인 동역자를 키우리라 마음 먹고 이일학교를 설립했다. 당시의 여성들이 남성에 종속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술교육이야말로 가난한 여성들에게는 절실한 것이었다.

서서평은 학생들을 위해 양림동 일대에 병발을 조성하고 양잠, 제사, 직포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선교사들의 바느질감을 학생들에게 맡겨 그들의 경제적 형편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일학교는 교육기회가 적었던 광주여성들에게 근대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많은 전문 여성인력이 배출되었다. 그들은 간호사, 산파(조산원), 교사, 유치원 보모, 여성 전도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반대, 축첩 금지, 공창 제도 폐지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도 주도했다. 또한 1923년 한국간호협회를 창설하여 사무소를 광주에 두고 11년간 회장을 맡으면서 간호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선인 간호사 양성과 조선인들이 중심이 되는 간호협회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서서평이 쓴 실용간호학 전서는 간호사 양성 과정의 기본교과로 오랫동안 사용됐다. 서서평은 한국 간호학과 간호사 양성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4년 6월 26일, 서서평은 만성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인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동아일보』 1934년 6월 28일자 기사에는 ‘미국분투 25년 자선, 교육 사업에 일생 바친 빈민의 자모 서서평양 장서’란 제하에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미국 장로회는 1930년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중 한명’으로 그를 선정했다.

02

## 유화례

Florence Elizabeth Root  
1893~1995, 미국



미국 선교사로 수피아여학교에서 여성교육에 기여하였다. 뉴욕에서 출생하고 1914년 매사추세츠에서 대학 졸업 후 교사로 근무하다가 버지니아 리치몬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2년간 수학했다. 1926년 미국 남장로회 한국선교사로 임명되어 한국으로 건너왔다. 서서평과는 뜻과 마음을 나눈 동역자였다.

1927년 1월 남장로회 선교부가 운영하는 학교인 광주수피아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영어, 음악을 가르치고 농촌을 방문하며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3월 수피아 교장에 임명되어 1937년 9월 폐교할 때까지 헌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교장 재임기간동안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여 여러차례 탄압을 겪었다. 학교 문을 닫은 후 애양원의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어린이를 가르치며 부모 잃은 어린이를 데려다 양육하면서 농촌 선교를 계속하였다. 1942년 6월 일제의 강제 추방 명령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해방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두차례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교장을 봉직하며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인들을 도왔다. 그가 가지고 다닌 봉고차는 전쟁 중에 많은 부상자들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1958년에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을 돕다 고문을 당하고 살아나 화해자로 활동하는 코리텐 붐을 광주에 초대해 전쟁으로 상처받은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 양림동의 여성선교사들

### 엄언라

E.I.Graham,  
1869~1930, 미국

광주 수피아여학교 초대 교장을 지냈다. 1907년 38세의 나이에 남장로교 교육선교사로 내한했다. 부임후 당시 광주에 여성을 위한 학교가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1908년 마가렛 벨 선교사와 함께 여자아이들을 배유지 선교사 사랑방에서 가르쳤는데 이것이 수피아여학교의 시작이다. 그 후 1911년 미국인 스텐스 여사로부터 오천 달러를 기부받아 3층의 회색 벽돌 건물을 지으면서 학교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는 수피아여학교 교장 후임인 구애라 선교사와 함께 생활하다 1930년 심장병과 후유증으로 사망, 양림동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었다.

### 구애라

Anna McQueen  
1883~1964, 미국

수피아여교 2대 교장으로 14년을 헌신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1909년 광주에 도착하여 1910년 광주 수피아여학교 2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건강 악화로 교장직을 사임한 후 전도 부인들과 함께 전도활동을 했다. 1940년 일제의 선교사 강제 추방 명령에 따라 미국에 갔다가 1947년 다시 돌아와 신사참배로 인해 폐교된 이일학교를 복원했다.

## 도마리아

Mary Lucy  
Dodson  
1881~1972, 미국

1912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광주에 왔다. 1922년 이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수피아여학교에서 30년간 교육을 담당하였다.

## 마가렛 벨

Margarlet W Bell  
1873~1919

유진벨(배유지) 선교사의 배우자로 수피아여학교 설립에 공헌하였다.

## 프란세스

Frances Anna  
Goheen  
1891~1959

고든 어비선 선교사의 배우자로 간호사 출신이다. 영양실조로 인한 영유아의 높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구하기 힘들고 생산량이 적은 우유 대신 쉽게 구할 수 있는 콩을 이용해 젖산으로 발효시켜 포도당을 첨가해 두유를 만들어 영유아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전쟁 중 초창기 간호부대 고문으로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도 했다.

## 허마르다

Martha L Huntley  
1941~

1965년 한국 부임. 기자출신인 허마르다는 전남대, 호남신학대, 삼양타이어 등에서 영어교사로 활동했다. 1980년 5월 시민학살의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고 도망친 학생들을 사택에 숨겨주었다. 그후 코리아타임즈나 코리아 헤럴드에 고정 칼럼리스트로 글을 기고하며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불러줘야 할 이유

유진벨선교기념관 지하에 가면  
선교사의 부인들을 설명하는 전시가 있는데,

남성 선교사의 배우자 역시 대부분 전문 분야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선교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했지만  
이름대신 00선교사 부인으로 적혀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선교회의 위원회 활동이나 투표권은  
남성선교사들에게만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부러줘야 할 이유이다.

04

## 조아라

1912~2003



광주 수피아여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을 경험했다. 조선독립을 위한 비밀결사 '백청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광주학생운동 때 일본인 학생과 달리 한국인 학생만 다수 검거되는 것을 보고 민족 의식을 갖고 독립운동을 결심했다. 백청단은 은반지 30여 개를 만들어 뒤에 암호를 새겨 단원임을 표시하였으며, 회비와 의연금을 모아 문맹퇴치나 수재양성 사업 등 계몽운동과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졸업 후 이일학교 교사로 일했으나 백청단 사건이 수사선상에 올라 교사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

해방뒤에는 광주YWCA 재건, 광주부인회 출범, 수피아여학교 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며 광주YWCA 활동을 통해 성빈여사 건립(여성과 전쟁고아를 위한 시설), 계명여사 건립(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학교), 가정법률상담소 설립 등으로 여성들의 삶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수습대책 위원회로도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

 조아라 기념관

조아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을 살았던 공간으로, 직접 사용했던 물품이나 옷, 훈장, 활동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05

## 김필레

1891~1983

1907년 정신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모교 교사로 발탁되어 후배를 가르치다 1908년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동경여자학원에서 유학하였다. 귀국 후 정신여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8년 최흥종 목사의 동생이자 의사였던 최영욱과 결혼하여 광주에 거주하였다.

1919년 조카 김마리아가 몰래 가져온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서를 복사하여 전국으로 살포하다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감옥살이를 하였고 풀려난 후에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흥학관의 야학 교사로도 참여했다. 1922년 3월 서울의 김활란과 함께 한국YWCA를 결성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성계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 해 10월 광주YWCA 창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24년 미국 조지아주의 아그네스 스캇 대학에 입학한 후 콜롬비아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한 후 1927년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근우회 창설에 앞장섰다. 1937년까지 수피아여자중학교 교감을 지냈으며, 1945년 광복과 동시에 수피아여자중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1972년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되었다.

06

## 현덕신

1896~1963



1896년 황해 해주에서 출생했다. 평양 남산교회 등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만세시위를 모의하고 임시정부 수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매진한 오빠 현석철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에 눈을 뒀다. 서울로 이주하여 이화학당 졸업 후 선교사 로제타 홀의 권유와 “조선 여자들을 위한 봉사적 생활”을 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현덕신은 1918년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 1921년 졸업 후 귀국하여 총독부 병원, 동대문부인병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현덕신은 일본 유학시절부터 의학을 공부하는 와중에도 2.8독립선언에 참여하고, 조선여자자유학생총학회 등 조직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투신, 여러 차례 검속되기도 하였다. 귀국 후에도 근우회의 발기인이자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며 여성운동에 헌신하였다.

1923년 동아일보 기자였던 최원순과 결혼, 이후 귀향하는 남편을 따라 1928년 광주로 내려와 총장로4가 옛 화니백화점 자리에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개설하고 의사로서 개업하였다.

광주 최초의 여의사로 활약하는 가운데 사회운동을 계속 이어나가 광주YWCA 회장을 역임했고, 근우회 광주지회를 설립하는 등 '조선 여성'과 '조선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방 이후 1949년에 사재를 털어 현덕신병원 안에 신생유치원을 열고 유아교육에 앞장섰고, 건국부녀동맹 초대 부회장, 독립촉성애국부인회 회장, 대한부인회 전남도본부 회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 활동에 매진하였으며 1963년 6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

### 로제타 홀

Rosetta Sherwood Hall, 1865 ~ 1951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890년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부임했다. 당시 조선 풍습 상 여성과 어린이들을 치료하려면 필히 여의사와 여성 전용 진료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화학당 내 여성 전용 진료소를 세웠다. 또한 그녀는 보구녀관 2대 원장 부임 후 "여성을 위한 의료 사업은 여성의 힘으로(Medical work for women by women)"라는 표어를 내걸고 여성을 위한 의료교육도 시작하였다.

07

# 김함라

1887~?



서울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수피아여학교 개교와 함께 최초 한국인 정식교사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교육과 여성으로서의 자각으로 광주부인회 활동, YWCA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동생인 김마리아가 일본에서 광주에 살던 김함라의 집으로 2.8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귀국해 독립운동가들의 회합과 만세운동 준비가 그의 집에서 이뤄졌다. 남궁혁 목사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 김마리아

1892~1944

서울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그후 일본 동경 유학으로 학업을 계속하면서 동경유학생 독립단에 가입, 조선 여자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반일의식을 고취해나갔다. 그러던 중 2.8독립선언문 수십 장을 가지고 귀국하여, 언니인 김함라의 집으로 가 광주만세운동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

그는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즉시 정신여학교 기숙사에서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그해 8월에 면소 석방되었다. 출옥 후 정신여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출옥 환영연에서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상해에서 조직된 대한적십자회 대한지부를 결성하고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로 보내고, 독립선언문을 배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체포와 모진 고문으로 중병에 걸려 서거하였다.



09

## 박애순

1896~1969



1915년 제1회 수피아여학교 졸업생으로, 이후 서울 정신여학교 사범과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재직 중 1919년 3월 10일 광주 지역 독립만세시위 준비와 당일 시위에 참가했다.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할 학생들을 조직했고, 김강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 50장을 수피아여학교 학생 홍순남과 박영자에게 전달해 대중에게 배포하게 했다. 이 사건으로 검거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받았다. 박애순은 광주 지역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 1세대로 1919년 3월 10일 광주 지역 독립만세시위에 수피아여학교의 참여를 매개함으로써 남녀의 동등성을 가시화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10

## 진신애

1900~1930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1919년 3월 10일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박애순 교사와 함께 기숙 중인 여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였으며 수피아여학생들을 이끌고 광주장터로 나가 시위군중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이처럼 선두에 서서 학생들을 지휘하며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 광주만세운동여성참여자명단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 진신애

^수피아여학교 학생^

홍순남, 박영자, 최경애, 양태원(정역8월)

김필호, 임진실, 고연홍, 박성순, 이태욱, 김양순, 양순희,

윤형숙, 김덕순, 조옥희, 이봉금, 하영자, 강화선, 이나철,

최수향, 김안순(정역4월), 홍승애(무죄)

^제증원 간호사^

최경등, 김화순(정역4월)

11

## 윤형숙

1900~1950



수피아여학교 학생이던 윤형숙은 1919년 3월 10일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시내를 행진하였다. 시위대가 행진하는 도중 일본 헌병대가 출동하여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헌병들은 실탄사격을 감행하며 무자비한 탄압에 나섰다. 일본 헌병은 선두에 있던 윤형숙의 왼팔을 군도로 내리쳤다. 팔이 잘린 윤형숙은 잠시 땅에 쓰러졌다가 일어나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 들고 독립만세를 더욱 크게 불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군중들은 비분강개하여 더욱 격렬하게 항거하였다. 윤형숙은 중상을 입은 채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윤형숙은 출소 후에 고문 후유증으로 공부를 중단하고, 요양차 전북 고창으로 내려가 유치원 교사로 6년간 일하다가 오빠가 살고 있던 고향 여수로 가 봉산학원 교원을 하며 여수제일교회와 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해 인민군이 여수까지 점령하자 피신하고 있다가 1950년 9월 28일 여수시 둔덕동 과수원에서 손양원 목사와 함께 인민군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 최흥종

1880~1966

오방 최흥종은 광주의 첫 기독교 장로이자 목사로 한평생을 한센병 퇴치와 빈민구제, 독립운동, 선교활동, 교육운동 등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광주 3.1 운동의 중심에도 최흥종과 그를 따르는 청년들이 있었다. 1927년 좌우익 세력이 합작하여 결성된 대표적인 항일단체인 신간회의 광주지회를 창립했다. 1945년 전남건국준비위원회에 초대 위원장에도 선출됐다. 서서평 선교사와는 동갑내기이면서 한센병 환자 치료와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한 동지이기도 했다.

## 두릅길 속

## 장소

01

# 이일학교

1922



선교사 서서평이 1922년 여성들의 문맹퇴치와 계몽을 위해 설립한 학교로 현재 전주 한일장신대의 전신이다.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나이가 들어 연령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다. 광주 최초의 여의사 현덕신이 서서평을 존경하며 이일학교를 도왔고 조아라를 비롯해 근대여성교육을 받은 여성활동가들이 이일학교의 교사로 근무했다.

당시 이름조차 없이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 어멈' 등으로 불리던 조선 여성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 불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이일학교 출신 여성들은 서서평과 함께 농촌으로 가서 매년 3~4만명의 여성들을 교육시켜 존중받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일깨워 주었다. 이일학교는 교육기회가 적었던 광주여성들에게 문턱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곳에서 많은 전문 여성 인력이 배출되었다.

" 유교적 문화에서 여성들에게 교육과 가정 밖의 사회 진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한다. 서서평과 같은 여성 선교사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진출에 힘쓰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

## 02

# 수피아여학교

1908



수피아여학교는 1908년 배유지 선교사의 부인 마가렛 벨 부인이 설립했다. 1911년 미국의 스텐스 여사가 여동생 제니 수피아(Janie Speer)를 기념하기 위해 당시 돈 5,000불을 기부해서 벽돌 3층 건물을 지으면서 수피아여학교가 확장되었다. 광주 최초의 여학교였던 수피아여학교는 처음에는 보통과 4년제였는데, 1914년부터는 보통과 6년제가 되었다. 광주 최초의 서양식 교육을 도입한 기독교 학교로서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해 일시 폐교되었다가 해방 후에 다시 학교 문을 열 수 있었다.

수피아여학교에는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 눈에 띄는데 수피아홀은 제니수피아를 기리기 위해 지은 건물로 회색 벽돌로 지은 것이 특징이며 2005년에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3.1 만세운동 당시 이 건물 지하에서 학생들은 교사 박애순의 지휘로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었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13

### 수피아의 졸업생들

홍승애 최인숙 조아라 양명순

홍승애 최인숙 조아라가 수피아여학교 졸업 후 이일학교 교사로 재직 조아라와 양명순은 광주여성운동의 핵심인물로 성장하였다. 근대여성교육은 독립운동과 근대여성운동으로 확대되어 여성과 아동의 인권신장, 사회진출, 여성교육 등에 기여하였다.

## 03

## 오웬기념각

1914



이 건물은 전남 최초 선교사인 오웬과 그의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1914년에 세워졌다. 네델란드식 회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광주 유형 문화재 2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곳의 설립에는 파이팅 선교사의 역할이 컸는데, 그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했고, 서서평 선교사의 한국어 교사이기도 했다. 예배당으로 세워졌지만 근대식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컸다. 남녀가 다른 출입문을 사용했지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보는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였다.

오웬기념각은 최초의 서양음악공연이 열렸던 곳이기도 한데 유치원 설립을 위해 김필레 선생이 자선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서서평 선교사의 시민장이 열렸던 공간이기도 한데, 이처럼 오웬기념각은 근대식 문화 공간이자 시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70번길 6

04

## 우일선선교사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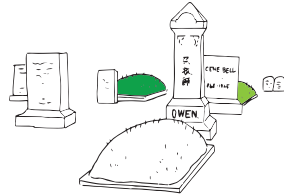
1920

광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으로 제중원(현 기독병원) 2대 원장을 지낸 우일선 선교사의 사택이다. 1910년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1921년 증축됐다. 초기에는 음악감사회 등 사교장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나, 이후 고아와 장애아들을 위한 고아원 기능을 했다. 사택 앞마당에는 우일선 선교사가 고향에서 가져온 종자를 심은 것으로 전해진 은단풍 나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5호)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47번길 20

05

## 선교사 묘역



해발 108m로 산이라기보다는 높은 언덕에 가깝다. 조선시대 관아에 화살대를 납품하는 '관죽전'이 있었고 아이들이 돌림병에 걸려 죽으면 내다 버리는 풍장터가 있었다. 110여년 전 이곳에 정착한 푸른 눈의 성자들은 '죽음의 산'에 나무를 심고 병원과 학교, 교회를 지어 '생명의 산'으로 바꾸었다. 이 묘역에는 1895년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와 나주, 목포, 광주에 선교부를 세우고 헌신적 사랑을 실천하고 순교한 27명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와 가족들의 묘가 있다.

06

## 유진벨 선교기념관

1914



유진벨 선교사와 그의 동역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 4월 개관하였다. 외관은 당시 유진벨 선교사 가족이 생활했던 사택의 모습을 재현했다. 선교사의 사진을 비롯한 유품과 양림동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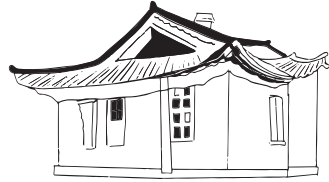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70



07

## 제중병원 (광주기독병원)

1905



1905년 미국 남장로교 의료선교사 놀란이 유진벨의 임의사택에 진료소를 연 것이 광주 근대의료의 시작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 폐쇄됐다가 광복 후, 결핵요양원으로 다시 열어 많은 한센 및 결핵환자를 치료했다. 1970년에 선교회로부터 독립, 광주기독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1층 로비에는 100여 년의 역사를 담은 '제중역사관'이 마련되어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를 자세하게 서술한 조선독립광주신문이 제중원 회계담당 직원이던 황상호 등의 주도로 발간됐다. 조선독립광주신문은 3월 11일 제중원 등사실에서 등사기를 이용해 발간되었으며 제중원 환자와 광주 큰장날에 모인 시민들에게 배포되었다. 이 신문은 광주는 물론 목포, 영암, 전남지역 만세시위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매년 3월에 제중역사관 앞에 관련 전시가 개최된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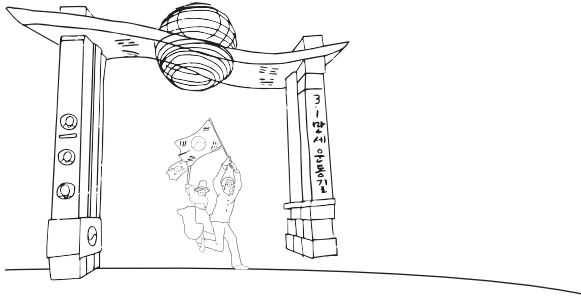
08

## 3·1만세운동길 아리랑고개 (기억의 언덕)

3·1만세운동길의 상징조형물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 독립운동 역사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된 광주 3·1 운동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조형물의 상단 숫자 3 모양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운동에 나서는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한 미니 동산과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문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ض대 역할을 하는 숫자 1 모양의 기둥에는 양림동에서 3·1 운동에 함께한 오방 최흥중 목사를 비롯해 수피아여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광주 3.1 운동으로는 104인이 재판을 받았다. 당시 광주인구가 1만여명이었는데 만세운동에는 1천여명이 참여했다고하니 독립을 위한 광주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만세운동길을 올라가다 보면 기억의 언덕이 있는데 광주 3.1운동 당시 상황을 재현한 벽화와 김함라(남궁혁) 집터로 추정되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적도의 변경 등으로 김함라 집터는 수피아여고 앞 KT 건물이고, 아리랑길은 오웬기념각 옆 양림교회에 광주 YMCA 전신과 농업전문학교가 있었던 길이라는 추정도 함께 존재한다.

역사적 공간은 후세에 계속 기록되어 전달되어야 함으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책임있는 기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86

## 09

## 광주YWCA

1922 ~

일본 유학 후 여성들의 기독교청년운동을 구상하던 김필레가 조선 YWCA 조직에 관해 주축이 될 사람들을 규합하게 되었다. 광주에서는 1920년대를 전후로 여자 야학을 비롯한 여성들이 주축이 된 계몽활동과 교육사업이 전개되고 있었다. 광주기독교부인전도회의 서서평 선교사, 광주부인회의 김필레, 광주청년회의 최흥중, 서북여자야학, 부인야학 등의 활동이 활발했다. 당시 대다수 일반여성들이 봉건적인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인지하고 여성들의 사회의식 고취와 생활개선 및 계몽운동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2년 광주 YWCA가 탄생되었다.

당시는 공교육기관만으로 배움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어서 초기 광주YWCA 활동은 고을과 마을마다 사랑방이나 향교를 빌려 성인여성이나 빈민가의 아동들을 가르치고, 여성의 능력과 자각을 통해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자는 학생YWCA 운동 등이 주를 이뤘다. 또한 건강한 신체는 올바른 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1930년대부터 호남여성농구대회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1936년 조선총독부 신사참배 강요 등으로 해산하여 1945년 재건된 이후에는 전쟁고아들을 위한 성빈여사 설립, 영세민 자녀들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사설학원인 호남여숙 설립, 성매매 여성 구호기관인 계명여사 설립, 가정폭력 등의 상담 등을 위한 가정법률상담소도 개소하여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여성운동도 펼쳤다.

## 10

# 근우회

1927 ~ 1931

1927년 4월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 여성대표들에 의해 여성유일당으로 창립되어 1931년 해체되었다.

호남지역에서는 전북 6개, 전북 2개의 지회가 설립되었다. 근우회는 봉건적 인습의 굴레와 일제식민지배의 민족적 수난을 받는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곳곳하게 활동을 추진하였다. 근우회는 운동의 이념과 목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그 지역의 여성유지를 찾아 지회 조직을 권유·지도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확산하였는데, 순천지회의 경우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성적 혁명' '여성해방의 전술' '여성해방과 무산운동'에 대한 연설 등을 진행하였다. 이때가 1925년이니 그 주제의 급진성에 놀랄 수밖에 없다. 근우회는 기술교육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심을 두었고, 야학운동을 전개하여 문맹퇴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광주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하였다.



## | 참고문헌

광주여성사 II (광주여성가족재단, 2020)

광주여성 역사문화 자원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체험로 개발  
(조선대학교 이동순교수, 광주여성가족재단, 2022)

양림동 사람들(홍인화, 광주문화재단, 2018)

광주YWCA 100년(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2022)

양림을 걷다(양림관광안내 가이드북, 광주광역시 남구, 2021)

광주여성가족재단 두릅길 해설사 표준시나리오, 2023

# 광주여성 두릅길

발행처 | 광주여성가족재단

발행인 | 김경례

발행일 | 2023. 05.

기획편집 | 광주여성가족재단

디자인 | 우아디자인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3층, 9층

Tel. 062-670-0500

<https://www.gjwf.or.kr>